

연예뉴스 HOT 5

구하라 폭행·협박한 전남친 징역 1년 확정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중범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부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중범의 상고 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최중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BS, 자회사서 펄스 등 캐릭터 뺐는 갑질"

EBS가 수익을 위해 자회사로부터 펄스 등 캐릭터를 빼앗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EBS 국정감사에서 "EBS 본사가 작년 11월 펄스, 뽕뽕이, 보니하니, 번개맨 등 캐릭터 7개를 EBS미디어로부터 이관했다"며 "본사가 자회사인 미디어를 상대로 '갑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명중 EBS 사장은 "EBS미디어 수익을 우리가 빼앗아갔다는 표현은 과하다"며 "본사 내 35명의 팀원들이 펄스를 키워내고 수익을 창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기광, 김근태 전 후보에 명예훼손 승소



이기광

가수 이기광의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엔터테인먼트(어라운드어스)가 음원차트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근태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1차 승소했다. 어라운드어스는 15일 "이기광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김 전 의원을 4월13일 민형사상 고소했고, 최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후보는 이기광과 가수 불빨간사춘기 등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박상면, 제주서 130cm 넘는 젓방어 낚아

연기자 박상면이 130cm가 넘는 초대형 젓방어를 낚아 화제다. 박상면은 12일 오전 6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갯바위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낙시형제' 촬영 중 물고기를 낚았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이라며 "물고기와 힘겨루기 중 낚싯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을 정도로 거의 사투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면의 낚시 현장은 23일 '낙시형제'에서 공개된다.

가수 김준수, 3년만에 미니음반 발매기로



김준수

가수 김준수가 3년 만에 신보를 내놓는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5일 "김준수가 11월 중 새 미니음반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김준수는 2018년 전역한 후 최근까지 '드라큘라' '모차르트' 등 다양한 뮤지컬로 무대에 올랐으나, 2017년 싱글 음반 '우리도 그들처럼'을 발표한 후 음악활동은 하지 않았다. 김준수는 이번 앨범을 선보이면서 온라인 콘서트도 열고 감염증 확산으로 팬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계획이다.

채널A 금토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의 주인공 연정훈

“끝까지 반전의 반전...긴장 붙들어 매세요”

극적 전개에 지난 10일 5.8% 찍어 “채널A 드라마 최고 시청률 기쁨요 유리리와는 동네오빠동생처럼 촬영 딸과 노는 모습, 연기에도 잘 녹아” 일요일엔 ‘1박2일 빙구형’ 또 변신



연기자 연정훈이 주연한 채널A 금토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로 채널A 역대 드라마 최고시청률을 갈아 치웠다. 그는 “시청자 반응이 좋았는데 결과가 좋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제공 | 935엔터테인먼트

“반전의 반전!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부드러운 매력으로 여심을 자극해온 연기자 연정훈(42)이 ‘반전의 아이콘’으로 거듭난다. 시작한 작년 이맘 때 시작한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였다. 뭘 해도 허술한 ‘허당’ 면모로, 젠틸한 이미지를 ‘와장창’ 썼다.

정점은 채널A 금토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이다. 매회 예측불허의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를 이끌면서 긴장감을 한시도 놓지 못하게 만든다. 24일 종영까지 단 4회 남겨두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15일 서면으로 만난 연정훈은 “앞으로 사건이 또 벌어지고, 인물들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채널A 드라마 최고 시청률? 기쁘다”

드라마는 남편의 살인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서 출소한 여자(이유리)가 옥중에서 낳은 딸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다. 연정훈은 극 중 이유리의 친딸을 입양해 키우는 방송사 사회부 기자 강지민역을 맡았다. 복잡한 관계로 얽힌 이유리와 애절한 멜로를 펼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인물이다.

극적인 전개가 입소문을 타면서 드라마는 10일 5.8%(닐슨코리아)까지 시청률이 치솟았다. 연정훈은 채널A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쓴 주역이 됐다.

“사전제작 드라마라 시청자와 똑같이 보고 있어요. 연기를 확인하지 못한 채 16부작을 촬영한 게 힘든 건 하더라도, 시청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가 좋거나와 굉장히 기쁘요. KBS 2TV ‘노란손수건’ 이후 17년 만에 만난 (이)유리 씨와 ‘동네 오빠 동생’처럼 편하게 촬영한 것도 정말 좋았어요.”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아빠’ 연정훈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딸을 홀로 키우는 강지민을 연기하면서 “실제 네 살배기 딸과 있을 때 모습을 많이 표현”한 덕분이다.

“극 중 딸 고나희 양과 다정한 부녀 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어요. 실제로도 딸아이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자주 놀아주곤 하거든요. 덕분에 나희 양과 연기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 “끊임없이 도전 또 도전”

금·토요일엔 드라마로 시청자를 만난다면, 일요일엔 ‘빙구 형’으로 돌아온다. ‘1박2일’ 시즌4를 통해 반전 매력(?)을 선보여 얻은 별명이다. 지난 1여 년 동안 그가 가장 많이 본 댓글도 “이 형 왜 이래?”였다.

“연기자로서는 주어진 장면을 늘 멋있게 보여야 했는데, 예능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어지르지 않은, ‘날 것’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내려놨어요. ‘잘하는 게 꼭 좋고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네’ 깨닫기도 했고요. 처음 부담감이 컸던 만큼 김중민·김선호 등 동생들과 서로 의지하고 위로도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 사이 엄청 돈독해지면서 지금은 또 다른 ‘가족’이 됐어요.”

‘새로움’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1999년 데뷔 이후 매년 드라마를 내고, 예능프로그램 활동도 병행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역할이든, 장르이든 상관없어요. 새 시도가 잘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해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BTS, 빌보드 뮤직어워즈 ‘톱 소셜 아티스트’상 부산국제영화제 오프라인서 맞 올린다

4년 연속 수상...‘월드파워’ 입증 멤버들 ‘아미와 연결 기념하는 상’



방탄소년단

15일, ‘방탄소년단(BTS)의 파워’가 국내외 안팎에서 톱특히 드러난 하루였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날(이하 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으면서 해외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톱 듀오/그룹’ 부문에선 수상하지 못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톱 소셜 아티스트’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빌보드 ‘소셜 50’ 차트 랭킹 등이 영향을 미친다. 방탄소년단은 2016년 10월 ‘소셜 50’ 차트 1위에 처음 진입해 최근까지 170주 연속, 통산 200주 자리를 지켰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관객 없이 진행됐다. 예년처럼 객석의 환호성은 없었지만,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가수로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멤버들은 “4년 연속 상을 안겨주시니 아미(팬클럽)에 감사하다. 어디에 있던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모두 14개팀 가운데 13번째로 공연을 펼쳤다. 사회를 맡은 가수 겸 배우 켈리 클라크슨은 “3년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들을 소개할 때 팬들의 함성이 너무 커서 한국에서도 들릴 지경이었다”며 “오늘

은 한국에서 무대를 꾸민다. ‘핫 100’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에 따르면 무대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펼쳐졌다. 건물 내부의 광활한 공간을 무대처럼 연출한 게 포인트다. 빅히트는 “팬데믹으로 단절된 세계가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며 기획했다. 전 세계 아미와 연결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이름값’을 제대로 확인했다. 코스피에 입성한 빅히트는 시초가 27만원보다 4.44% 내린 25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시가총액 8조 7323억원, 코스피 32위의 ‘엔터 대장주’에 등극했다. ‘엔터 3대주’인 JYP·YG·SM엔터테인먼트의 합산 2조 7812억원을 3배 이상 차이로 앞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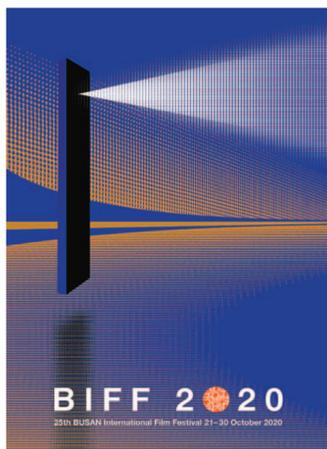
빅히트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 35만 1000원까지 치솟으며 이른바 ‘파상’에 성공했지만,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거래대금 1조 9410억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 1위였다.

21일 개막...68개국 192편 영화 초대 ‘칠중주:홍콩 이야기’ 개막작으로 상영 좌석 25% 영화제 흥파·공식업서 예매

부산국제영화제가 감염병 확산 여파를 달고 오프라인 무대의 빛을 올린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21일 막을 올려 68개국 192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이를 위해 15일 오후 2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상영작 티켓 예매를 시작, 폐막일인 30일까지 이어간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가 내려질 경우 올해 무대를 취소하기로 하고 그 여부를 15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하면서 오프라인 개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영화제는 21일 흥진바오(홍금보)·위안허펑(원화평)·쉬커(서극) 등 7명의 홍콩 감독이 함께한 옴니버스 영화 ‘칠중주:홍콩 이야기’를 개막작으로 내세워 관객을 만난다. 부산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5개관에서 편당 1회 상영한다. 또 오프라인 현장 매표를 진행하지 않으며 좌석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개·폐막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해외 영화 관계자 초청 취소 등 철저한 방역조치에 나선다. 영화제 한 관계자는 15일 “극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인원만이 입장할 수 있다”며 “각 상영관 전 좌석의 25%에 해당하는 분량의 티켓만 영화제 홈페이지와 공식 앱을 통해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예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화제는 대신 초청작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Guest Visit)’를 통해 관객의 아쉬움을 달랜다. ‘반도’의 연상호·‘사라진 시간’의 정진영·‘울림을 울림대는 가슴안고’의 안재홍 감독 등이 직접 부산으로 날아가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 또 ‘시티홀’의 프레데릭 와이즈먼·‘트루 마더스’의 가와세 나옴이 등 해외 감독들도 온라인 영상 연결로 GV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왕지웨이(왕기위) 감독의 ‘화양연화’ 복원판을 비롯해 구로사와 기요시의 ‘스파이의 아내’, 차이밍량의 ‘데이즈’, 오손 웰스의 ‘호퍼/웰스’ 등 거장들의 작품도 상영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